



**DOMAINE
BERTHET
BONDET**

Domaine Berthet-Bondet Savagnier

도멘 베르데-봉데, 사바니에

Winery Description and History

농학 기술자로 커리어를 시작한 Jean Berthet-Bondet와 Chantal은 1984년 Château-Chalon에 정착한 후 1985년 첫 포도를 수확한다. 부부 모두 통상 유구하게 와인을 양조해 온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원 터와 와인 메이킹 노하우를 점차적으로 획득해 가는, 소위 진화하는 와이너리로 볼 수 있다. 현재 약 15 헥타르의 포도밭을 보유하고 있으며, 평균 나무 수령은 30년으로 2010년에 이르러 모든 포도밭이 유기농법으로 전환되었다. 현재 부부의 딸 Helene이 2018년 이래로 에스테이트를 물려 받아 퀄리티 쥐라 와인 생산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. 에스테이트를 포함한 모든 건물은 16세기 건축물로 샤토-살롱 수도원 청지기의 집으로 알려져 있으며, 과거 Château-Chalon의 많은 수도승, 수녀들이 소속되어 있던 Franche-Comte의 고귀한 귀족 가문을 대변하는 역사적 산물이기도 하다.

이 궤베를 구성하는 'Savagnin' 포도는 에스테이트가 독점적으로 보유한 '사바니에'라는 터에서 수확한 것이다. 유기농으로 재배된 사바냥 포도는 풍부하고 복잡한 맛과 오래 셀라링이 가능한 잠재력이 특징으로, 갓 자른 풀, 감귤류, 그린 애플, 사과즙의 싱그러운 풍미가 아름답게 팔렛을 채운다.



Cotes du Jura, Jura, Bourgogne / France



Savagnin 100%



2019



14% / 750ml



이회토



스테인리스 스틸 탱크 10개월 (ouille)



밝은 노란 빛



막 짙은 풀내음, 감귤류, 레몬, 청사과, 씨드르



밀랍, 꿀, 호두, 효모의 맛



아페리티프로 적격, 모든 생선 및 해산물



1999
VINTAGE KOREA